

학자그룹 인터넷 언어에 나타난 특성 분석*

최진숙
(영산대학교)

Choi, Jin-sook. 2011. Analysis on the Internet language for the Korean scholarly group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275-292.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languages on a particular internet web site in which some Korean scholars a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more than 10,000 written passages obtained from the particular web site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r more than one year. The users and writers for this web site were researchers, professors and their candidates, and Master or Ph.D candidates, whose job was generally concerned with studying, teaching and research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y were trying to show their social dialects to be identified as a scholarly group; their languages involved the high level of academic vocabulary and many foreign words and show a standard language, a long sentence and rules of composition even though they were on internet web site. As showing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society and identical internet names in their writings, psychological complexity about their identity were also revealed in this study. Overall,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Korean scholars consciously make an effort to maintain their social identities with their sociolinguistic features as a upper-level group in Korean society.

Key Words: scholar group, social dialect, social identity, internet languages

1. 연구 목적

모든 사회집단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집단의 언어는 그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각 사회집단의 언어에는 각기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고, 그리고 경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집단에서 표현되는 언어에는 사상과 이념을 보여 주는 사회적 특성들이 나타난다

* 본 연구는 영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Holmes, 2001). 그리고 그런 사회적 특성들은 보여주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이 포함된 사회의 힘을 만들고, 표현된 그 언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특성, 힘,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특정한 한 사회집단이 쓰는 언어를 사회방언(social dialect)이라고 하고, 사회방언이 형성되는 요인은 계층, 성, 연령, 직업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사회 방언 같은 특정한 한 집단의 언어는 한 그룹의 상징(symbol)이 되기도 하고(Fishman, 1972), 상징과 특성이 포함된 집단 구성원의 개념은 바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즉, 사람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집단과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자신과 구분(Homers & Michel, 1989; Romaine, 1995)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과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성들을 찾게 되는데, 그 중 언어가 자신들을 구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면 자신들의 언어를 집단정체성의 상징 및 도구로서 다른 집단에게 나타내고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언어정체성 이론'(Giles & Johnson, 1987)이다.

사회방언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상위계층에 속한다고 구분할 수 있는 학자그룹(이주행, 2007)의 사회방언과 관련해서 정확히 조사 연구된 것을 아직 없다. 더군다나 학자그룹의 인터넷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은 더욱더 찾기 어렵다. 정보통신 문화로서의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 언어를 쓰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불편하며 일상어의 규범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파괴의 주범이라는 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연구시도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언어문화로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언어, 새로운 한국어 사회방언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이정복, 2009, p.39), 사회 여러 계층의 인터넷 언어에 대한 연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인터넷 언어(이정복, 2003), 신조어로서의 인터넷 언어(송민규, 2007), 남성과 여성간의 인터넷 언어(송경숙, 2003)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언어'란 인터넷의 한 특정한 사이트 게시판에 나타난 질문과 대답 내용, 그리고 의견계제 및 토론내용에 표현된 문장들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학자그룹'이란 본 연구의 대상인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해온 교수들 또는 연구자들, 또는 교수가 되기 위해 정보를 구하고 있는 박사지원자 또는 교수가 될 자격을 갖춘 교수후보생들, 혹은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 채용 정보를 구하고 있는 교수지원자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학자그룹의 인터넷 언어를 통하여 어떠한 사회방언과 정체성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언어 속에 숨어있는 사회성 측면 및 심리측면을 고려하여 그들의 사회적 속성과 그들 언어의 참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집단의 언어와 사회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특정계층의 사회언어학적 및 문화적 특성은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특정그룹은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다른 그룹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그룹 구성원들의 새로운 사회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세대인 학생들은 학자들에게 언어를 통해 지식을 전달 받고, 학자들의 사회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다른 여러 그룹 구성원들은 학자그룹의 언어를 자신들 그룹의 표본으로 받아들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및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그룹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특정한 그룹의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인터넷 언어를 통해 그들만이 가지는 언어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분명 필요하다.

2. 사회계층과 언어

사회언어학이란 언어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춘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Fasold, 1984; Edwards, 1985; Holmes, 2001; Romaine, 1995). 이처럼 사회적 요인으로 언어변이가 된 것을 특정한 사회집단이 사용하게 되면 사회방언(social dialect)이 된다. 언어의 변이를 일으키는 사회적 요인에는 사회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인한 언어변이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사회계층을 중요한 사회적 변수로 하는 사회방언 연구가 활발해졌고, 따라서 이제는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변이를 전형적인 사회방언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상규, 안기남, 2007). “사회계층(social stratification)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전체 구성원의 불평등을 반영하는 집단 사이의 층위구조를 뜻한다”(이주행, 2007, p.37). 따라서 사회방언을 계층어라고도 한다.

사회방언 또는 계층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집단의 계급을 분류해야 한다. 인도나 조선시대처럼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집단은 집단의 계급을 분류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엄격한 신분 제도가 없는 현대의 한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계층적 등급화가 어렵다(이익섭, 1998).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계층과 언어변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등급을 나눌 때, 학력이 기본 등급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영모(1982)가 분류한 사회계급을 보면 재산, 학력, 직업, 수입, 가문, 인격을 분류준거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주행(2007) 또한 자신의 사회방언 연구에서 학력, 직업, 재산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크게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고 다시 상위, 하위, 중위의 층위로 나누어 각 계층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등급, 즉 최고 상류층기준의 학력은 ‘대학원졸업’이었고, 직업은 ‘교수’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학자계층은 ‘대학원졸업자’로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요인 및 직업 같은 사회적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상위층 계급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언어가

사회계층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계층어 혹은 사회방언 연구는 사회계층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상위계층의 언어에서는 큰 변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적 변동에 따라 가장 유동적인 중류계층에서는 언어에 변이가 많은 나타난다(이상규 & 안귀남, 2007).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계층별 언어를 연구한 이주행(200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계층에 따른 집단 구성원들의 언어특성은 각 계층의 어휘, 문장, 문법, 담화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일반적인 차이로 상위계층일수록 그 사회의 표준어로 쓰이는 어형을 많이 쓰고 비표준어는 하류계층일수록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위계층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언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맞도록 “코드전환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이주행, 2007, p.134). 또한 이상규와 안귀남(2007)에 따르면, 비표준어지역에 있는 상위계층은 일상적으로는 비표준어 지역의 방언형을 구사하지만,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상위계층은 표준어를 사용해 교육을 받았고 따라서 표준어사용 능력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회방언의 변이형으로 “양층언어(Diglossia)”(p.240)를 구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계층 간에 말투상의 차이(발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상위계층일수록 ‘형식적 말투’, 즉, “화자가 자신의 말씨에 주의를 기울여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하류계층일수록 일상적 말투,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발음하는 자연스러운 말투”가 많기도 하다(이상규 & 안귀남, 2007, p.241). 또한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는 상위계층에서 하류계층으로 갈수록 많다고 보고되었는데(이상규 & 안귀남, 2007), 이는 하류계층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내면적인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외국어휘를 한국어에 혼용하는 비율은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높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주행(2007)의 연구에서도 하류계층은 외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계층이 외국어휘를 많이 혼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였다. 이처럼 학력이 높은 상위계층에서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식자층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자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조선시대 한글창제 이후에 한자가 한글보다 상위계층의 언어로 사용된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Sohn(1994)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한글은 일반 여성이나 평민이 쓰는 언어이고 한자는 식자층의 언어라는 사회적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계층은 그 사회에서 힘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역으로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회에서 힘이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다(최진숙, 2004).

또 하나의 상위계층의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류계층보다 하류계층이 비문법적인 문

장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류계층으로 갈수록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주행, 2007). 그리고 담화를 형성하는 문장의 평균길어도 상류계층일수록 장문으로 말하고 하류계층일수록 단문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류계층일수록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났고, 하류계층일수록 언어구사 능력이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나이가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말하는 비율은 하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높아, 하위계층에서 대화할 때 대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위계층 언어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상위계층은 표준어를 쓸 확률이 높고, 비표준어와 비속어 등을 사용할 확률이 낮다. 또한 계층 간 말투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상위계층일수록 형식적 말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 나이가 상위계층은 어휘에 외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법을 구사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상위계층의 문장이 하류계층에 비해 장문일수 있고, 관련성의 격률을 잘 지킬 확률이 높다.

3. 언어정체성 이론

사회방언으로 그룹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그룹구성원들의 인식에 의해 이루어진다(최진숙, 2006). 여기서 Giles와 Johnson(1987)이 연구한 '언어정체성 이론'(Ethnolinguistic identity theory)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언어와 언어정체성의 관계를 연구할 때 '언어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학자들은 고심해왔다(예, Giles & Coupland, 1991). 언어정체성이란 두 가지 면(aspect)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중 하나는 주관적인 면으로서 자신이 어느 특정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믿는 스스로의 인식(self-perception)이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면으로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언어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특정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나이가 Giles와 Coupland(1991)는 이 두 가지 면에 더하여, 언어정체성 인식은 전후 상황(context)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어와 관련된 정체성은 인식적인 과정(cognitive process)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식이 변하면 자신의 언어의 특성 또한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언어정체성이론은 Tajfel(1974)의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근거한 것이다. 사회정체성이론이란, 사람들은 자신이 한 특정한 그룹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을 '보호 존속시키려는 그룹의식'(김종훈 외, 2005)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context)에서 자신의 그룹에 적극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그룹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특성들(features)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최진숙, 2006). 그 이유는 다른 그룹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자신의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들이 있든가 또는 심리적으로 확연히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차이점(differentiation)을 가지고 있다

면, 이러한 것들은 그룹 구성원들에게 자부심(pride)을 주게 되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에게 가치를 심게 되며 그 좋은 특성들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Giles & Johnson, 1987).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속한 그룹이 다른 그룹과 다른 그들만의 특별한 특성들을 찾을 때, 만약 자신이 속한 그룹의 언어가 그룹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다른 그룹과 구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들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그룹과 자신들의 그룹을 차별 나게 하기 위해 그들만의 언어 특성들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들의 사회방언 같은 언어 특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정체성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이 언어정체성이론은 다른 많은 연구에 적용되었다(예, 최진숙, 2006; Bourhis & Giles, 1977; Giles & Robinson, 1990; Gudykunst, 1988). 예를 들어, 최진숙(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지방별 출신들은 자신의 지방언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있고, 따라서 그 지방언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자신의 지방언어를 다른 지방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Bourhis와 Giles(1977)의 연구에서도 웨일즈(Welsh) 사람들은 자신이 웨일즈 사람이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언어가 다른 그룹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웨일즈 억센트(accent)를 강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언어정체성이론에 따르면, 한국학자그룹들의 언어특성을 통해 언어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룹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알아볼 수 있다. 한국학자들은 자신들의 언어특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의 언어특성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방언 같은 자신들의 언어 특성들이 자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학자집단은 자신들의 언어 특성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언어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4. 연구방법

이 논문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특정 사이트(<http://www.hibrain.net>)의 테마카페 중 '교수의 길'에 게시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올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교수 및 연구원들, 그리고 교수직 및 연구직 지망생들이다. 학술진흥재단 통계정보에 따르면, 1990년 1년 동안 신고한 해외박사들이 82명이던 것에 비해 2007년에 1,533명이 신고하였다. 이는 약 17년 동안 20배가 늘어난 것이며 현재까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한 숫자가 33,766명으로 박사학위가 아닌 석

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숫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학위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이 사이트에 접속하지는 않더라도 교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본 요건이 학위이므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글과 접속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재는 하루에 약 500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접속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교수채용정보, 논문, 대학교육과 관련해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실리는 곳이고, 접속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속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교수지망생들이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접속하는 사이트로 유명하다.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는 번호/종류/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종류'란에는 '질문'이 주어지면 여러 '답변'이 순서대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료의 분석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약 10,000건의 내용들이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들 속의 특성들을 분석 할 때, 익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류하기 위해 분류번호를 사용하였고, 날짜와 함께 원래의 글(원글)인지 답으로 써놓은 글(답글)인지 분류해 놓았다.

5.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읽고 언어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본 논문에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들을 샘플로 채택해 옮겨놓았다.

5.1. 표준어와 고급어휘, 그리고 장문 사용

먼저 웹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된 문장들은 아래와 같이 대체적으로 표준어와 고급어휘, 그리고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신이 사회지도계층으로 거듭나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나 역사적 윤리적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개인적인 노블리즘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세요”(5849 답글, 2008. 1. 20). “아무튼 이는 부수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한국에서 가져올 돈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생활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6188 답글, 2008. 4. 15). “최소한 저희는 소위 말하는 인맥

이나 학맥에만 의존하여 전임교수를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정자 두고 공고를 낸 일도 없고, 누구를 들러리 세운 일도 없습니다...그러나 지원자 분들이 불공정을 호소하시는 부분을 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박사에만 편의를 제공하는 불공정한 임용기준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6871 답글, 2008. 9. 5).

위에서 보듯이 ‘사회지도계층’ ‘책임감’ ‘역사적, 윤리적’ ‘심사숙고’ ‘부수적’ ‘영위’ ‘소위 말하는’ ‘인맥’ ‘학맥’ ‘내정자’ ‘심분 이해’ ‘편의’ ‘일리’같은 고급어휘들이 대부분의 문장에서 발견된다. 또한, “당신이...사세요.”(5849)는 75자로 장문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언어가 표준어다. 전국의 학자들이 올리는 게시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 지역적인 이유로 비표준어가 많을 수 있으나, 비표준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어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표준어 지역 화자이면서 교육을 받은 계층은 일반적으로 ‘양층언어’(이상규 & 안귀남, 2007)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학자들의 언어는 사회적 배경을 담은 직업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고급 문장과 표준어를 의지적으로 쓰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었듯이, 일반적으로 상위계층 언어의 특성을 보면, 표준어를 쓸 확률은 높고 비표준어와 비속어 등을 사용할 확률은 낮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장문일 수 있고 형식적 말투를 사용할 확률이 높는데, 이 그룹의 인터넷 언어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5.2. 한자어와 공존하는 외래어 사용

나아가 이들의 인터넷 언어에서는 한자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저 역시 문과계열이구요 저의 경우는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있는 사립대)에 올 때 아무런 인맥(?)도 없고, 저희 과 교수님들과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내정(초빙 공고 내기 전부터 학과에서 내락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겠습니다)으로 되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5877 답글, 2008. 1. 23). “역지사지를 해봅시다.”(6214 답글, 2008. 4. 20). “부연하자면...”(6207 답글, 2008. 4. 18). “이것만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운철기삼입니다.”(6804 답글, 2008. 8. 17). “일어지택! 글을 읽고 약몽 같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동병상련을 느낍니다.”(6904 답글, 2008. 9. 24).

윗글에서 ‘문과계열’ ‘재직’(일하는), ‘소재’(위치해 있는), ‘인맥’(아는 사람), ‘일면식’(서로 얼굴을 대함), ‘소위(이른바)’, ‘내정(내부적으로 작정)’, ‘정의(定義)’, ‘역지사지(易地思之),

‘부연(敷衍), ‘운칠기삼, ‘일어지탁, ‘동병상련’ 등은 한자어로서 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이다. 위의 글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한자어였다. 이처럼 한자어와 공존하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한자어가 사용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래어는 식자층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Sohn(199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는 조선시대부터 한자를 가치 있는 언어로 받아들인 상위계층의 고정관념이기도하다. 지금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자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인 학자그룹이 한자어를 이처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도 한자어는 한국사회에서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5.3. 외국어(영어)를 자주 사용

고급어휘, 한자어뿐 아니라 외국어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연구방법에서 언급되었듯이 예전에 비해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는 학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외국어를 일상어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설령 해외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자그룹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며 외국어를 통해 지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다양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의 대부분은 영어였다. 요즘 많은 대학에서 ‘영어강의’가 대세인 상황에서 교수직을 현재 맡고 있거나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영어의 사용은 더욱 늘어날 추세로 보여 진다. 아래의 그 예들이 나와 있다.

“첫 티칭 후 강의평가”(5974 원글, 2008. 2. 10). “학생들이 쓴 comments도 중요한..”(5974 답글, 2008. 2. 12). “민감한 용어일 수 있는 "vs" 를 사용하게 된...”(5911 원글, 2008. 1. 29). “논문 reject 먹고 하루 종일 낙담... 첨부된 리뷰파일을 열어 보니 리뷰어 4명중 2명은 억셉트라고 한 문장의 멘트만 남겼는데...”(6012 원글, 2008. 2. 20). “미국의 경우 엄청난게들 tenure 못 받고..”(6916 답글, 2008. 9. 27). “2006년에 publish되었는데 2006년 impact factor 리스트에 없어서 걱정이네요. 2004년 impact factor list에는 들어 있습니다.”(6914 원글, 2008. 9. 25). “몇 편이 under review 중인데...”(8315 원글, 2010. 1. 31). “학교에서 in press 논문을 인정하는 곳도 있고...”(8315 답글, 2010. 1. 31). “Don't be afraid of...”(7593 답글, 2009. 4. 22). “There are waves in...”(8220 답글, 2009. 12. 19). “gogogo”(7793 답글, 2009. 3. 13). “good luck”(8556 답글, 2010. 5. 4). “welcome to reality”(9469 답글, 2011. 6. 1). “He/she didn't complain the fact...”(9505 답글, 2011. 6. 23).

위에서 ‘티칭(teaching)’, ‘comments’, ‘vs’, ‘reject’, ‘리뷰’(review), ‘억셉트’(accept), tenure, publish, impact factor 등은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지 않는 영어인데, 이러한 영어들은 학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평소에 쓸 수 있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Don’t be afraid...”, “good luck”, “welcome to reality” “He/she didn’t...” 등은 일반 영어로서 이 집단이 외국어를 많이 접했고 학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상위계층이 어휘에 외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었는데, 따라서 이 집단이 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잦은 외국어 혼합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영어가 이처럼 한글 문장 사이사이에 혼합되어 있으나 이 사이트에 접속한 그룹구성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언어들인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영어가 질문과 답변에 사용되어도 영어 때문에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글을 읽는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 많은 영어 어휘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어를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문법적으로 정확한 구사를 하고 있어 상위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언어 특성들을 볼 수 있다.

5.4. 객관적인 자료 제시

사회계층 요인에 의해 이 그룹의 인터넷게시판 담화내용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성은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을 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 그룹구성원들의 직업특성상 그들은 주로 논문을 쓴다거나 교단에서 지식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논문을 쓰거나 가르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고 인용하고 제시하듯이, 이 사이트에서도 질문하거나 토론 할 때 그러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언어의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낮은 사회계층인데(이주형, 2007) 이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능력 부족 때문이다.

“앞에서 학벌주의 사회에 대한 논쟁이 심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분석하여 첨부 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사회의 풍토를 비판하기 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놓고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5866 원글, 2008. 1. 22). “말들이 많으나 그게 그나마 가장 믿을 만 한 것 같습니다. 각종 지표별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최근 5년간 기록을 비교해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겁니다.”(5862 답글, 2008. 1. 21).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뽑아본 년도 별 출생자수 데이터입니다. 1990년 658,552 1991년 718,279 1992년 739,291 1993년 723,934...”(5905 답글, 2008. 1. 28).

5.5. 번호(순서)매기는 것을 선호

객관적인 자료 제시 뿐 아니라 서로 질문하거나 대답할 때, 또는 토론할 때 곳곳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룹 구성원들에게는 글에 순서를 정하고 번호를 매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자.

“여러분들께서...아래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1....출신이 미국에 많을 수밖에 없다...2. 원글의 논리는...것이다?...3. 계층간의 유동성이 중요하다...”(5907 답글, 2008. 1. 28). “1)고교에서...사실인가요? 2)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실적이 저조할 때는 임용 제 계약시 문제가 되나요? 3)입시철이면...소요되는 일수는요? 4)대학교수로서...질문드려도 될까요?”(5914 원글 2008.1.30). “정출연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1)우물쭈물 하시다가 이중취업이 되면... 2) 제 경험상 18일에 연락이 왔다면...3)정출연에는...제일 좋습니다.”(6013 답글, 2008. 2. 20) “첫째, (아래 글 목록에서 제기 된 것처럼)... 둘째,... 셋째, 사실 이것이 가장 주요 쟁점인데...”(6257 답글, 2008. 5. 2).

위의 내용처럼 이 그룹구성원들은 1.2.3.4번 등 번호를 사용하여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상류계층 화자들은 청자 대우를 중요시하고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반면, 하류계층의 화자들은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정한 화제 제목에 따라가기 쉽기 때문이다”(이주행, 2007, p.46). 이는 누구에게나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학자들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순번을 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평소에 주변에 있는 학자들을 보면 글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주요요점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첫째, 둘째, 순번을 매기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가르치는 직업에서 비롯된 이 그룹의 구성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스타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논문을 쓰기 때문에 평소의 논리적 글쓰기 습관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 나타난 문장들의 특성 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은 논리적 글쓰기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5.6. 인터넷 언어가 아닌 형식적 언어 사용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어에 나타나는 비표준어와 비속어는 하류계층 또는 저학력에 갈수록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주행, 2007). 또한 인터넷 언어는 한국어 사회방언의 하나로서, 가벼운 내용과 재미 위주의 글로 문장 완결성이 낮고 비규범적 언어가 많이 쓰인다(이정

복, 2009). 그러나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룹구성원들의 인터넷 언어에서는 인터넷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따르지 않고 일반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준어와 규범적인 언어, 그리고 일상적 언어가 아닌 형식적 언어를 굳건히 사용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언어와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인터넷 언어’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어는 발음과 표기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정복, 2009). 예를 들어 소리 나는 대로 쓴다든가, 언어를 변형시켜 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음운·음절을 축약 또는 탈락시켜 음절수를 줄이는 방법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다. 어휘약어(예, 애니: 애니메이션, 컴: 컴퓨터), 비속어(예, 간지다: 멋지다, 짝퐁: 가짜, 쪽: 얼 굴), 은어(예, 초당: 초등학교, 추카: 축하해요, 방가: 반가워요), 변형어휘(예, 어섭서: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등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어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이 사이트에서도 아주 간혹 드물게 강추(강하게 추천), 비추(추천하고 싶지 않다) 등이 쓰인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쓰는 인터넷 언어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횡수였다. 즉, 인터넷 언어를 쓴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어휘약어, 비속어, 은어는 물론, 인터넷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글자도 그 예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처럼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인 인터넷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 다른 그룹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들만의 품위 있는 언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곧 자신들의 문화와 상징임을 나타내려는 심리와 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7. 상대방을 가르치려는(지시하는) 말투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성은 그들의 인터넷 언어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 사이트에 접속한 구성원들의 직업적 특성들이 그들의 인터넷 언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말투의 습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이 식자층이라는 인식과 함께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남에게 지시하는 말투가 나올 수 있다. 사회계층요인에 의한 언어변이다. 아래의 예들을 보도록 하자.

“그런 의견은 지식인으로서 또 최고급 박사로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주관적인 또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봅니다.”(6247 답글, 2008. 4. 30). “님의 논리는...터무니 없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합니다.”(5907 답글 2008. 1. 28).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많이 오만 하군요.”(6844 원글, 2008. 8. 28). “미국에서 학위 받고...들어오려는 제자한테 일일이 다 이야기 해주겠습니까?(6834 답글, 2008, 8. 26). “...되는 것은 아닙니다.”(6830 답글,

2008. 8. 25). "...그게 가능하겠습니까?"(6824 답글, 2008. 8. 22). "...인문계의 선비 정신(?)이 있는 한 절대로 안 바뀝니다."(6835 답글, 2008. 8. 26).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의가 아니라 봅니다, '오류에 불과 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등 아니다, 하지마라, 절대로 안 된다 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투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보다는 일방적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스타일의 말투는 분석대상이 된 전 내용에 거쳐 끊임없이 나타났는데, 이런 투의 언어가 시작되면 흥분된 글들이 투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수없이 발견되었다. 즉,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확고한 신념만 보이는 것이다. 더 재미있는 결과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제 실수다'등 사과하는 말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언어적 특성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학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의 표출일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학문적 교양과 실무능력으로 지배의 정통성을 세웠으며 실천의 근원을 우주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에 두었다(김교빈 외, 2007). 그 당시 교육대상이 양반계급, 즉 상위계층이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배신분으로서 특권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특권의식이 몸에 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대화가 되면서 신분제도가 없어졌고 따라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학자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온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학문을 하여 최고의 경지에 오르거나 또는 학문을 하는 직업을 가문의 영예 또는 사회적인 지위처럼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사회에 남아 있는 그러한 인식들을 발판으로 한국에서 학문하고 있는 현대의 학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계층을 특권화하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일상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히 어떤 사실에 대해 논쟁을 할 때 가장 잘 나타나는 이 가르치려는 말투는 학자들이 가장 가지기 쉬운 언어습성이다. 이러한 습성 또한 그들의 정체성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이 이러한 언어습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언어습성이 일반인들과 구별 짓게 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습성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언어정체성이론(Giles & Johnson, 1987)의 기본 개념에 따르면, 그룹의 색다른 언어특성들이 다른 그룹과 차별시킨다고 그룹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들의 이러한 언어의 특성(지시하는 말투)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5.8. 자성과 의무감 표출

현재 한국의 학자그룹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열의 결과로서 지식을 내세운 식자층의 한 집단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들 학자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경제적인 요소에 가치관을 덜 두고 학문에 가치관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김교빈 외, 2007).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사이트에 표현되어 있는 그들의 글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 어떤 그룹보다 학문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학벌만 내세우는 같은 집단의 학자들을 부정함으로써 진정 공부하는 일이 자신들의 주요 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학자로서 연구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든가 자신들이 다른 그룹을 끌고 가야 하는 리더 그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드러냄으로써 또는 학자로서 자신들 그룹에 엄격하지 못했음을 자성하는 글을 보임으로써 그들 그룹이 사회지도층이란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즉, 스스로 반성하고 학자의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학자그룹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배타적인 의식은 이들 그룹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그룹을 보호 존속시켜야 한다는 그룹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아래의 그 예들이 나와 있다.

“요사이 저의 고민은 ‘어떻게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조언을 구해보고는 있지만 이런 질문은 전공이 조금 다른 선배분들도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것들인 것 같아 경험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6778 원글, 2008. 8. 8). *“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일 매일 느끼며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제 자신을 채찍질 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연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라 합니다.”*(6738 답글, 2008. 8. 8). *“...박사학위는 대학원의 졸업장 일뿐이지 그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박사는 교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교수는 먼저 선생이 되어야(인격수양)하며...오늘날에 평가기준이 너무도 왜곡된 듯 싶다.”*(6584 원글, 2008. 7. 8). *“저는 교수가 절대 벼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직업입니다.”*(6888 원글, 2008. 9. 13).

5.9. 통신회자의 통신이름(대화명)이 일정

이정복(2009, p.183)에 의하면 학술(교수채용정보)등에 나타나는 통신별명(통신이름)들은 주로 “신임교원, 왕초보박사, 아직도 임시직, 기금, 포닥, 김기금, 국내박사학위자, Dr. Stone, 막차탄이, 막차도 농친이, 주변인, 슬픈이, 희망교수”등 사이트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신회자의 이름이 주로 쓰인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이트는 80%이상이 통신별명을 사용하여 “사이트 특성이나 게시글 내용과 응집성 또는 응결성을 강하게 유지”(이정복, 2009, p.200)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이하게 본 연구 대상이 된 사이트에서는 의견을

게시한 화자는 ‘무명씨’, 답변을 달아주는 사람은 ‘답변자’라는 통신별명이 대부분이었다. 가끔씩 Avalon, Seed, 필름뮤직, 교육철학, 노란비둘기 등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 통신 게시판에 올려진 80%의 통신이름들과 비교하면 거의 드물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심리가 발견된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함으로써 그리고 일반인과 다른 언어표현으로 자신들이 상위계층이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주면서도, 정작 자신 개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청자의 입장에서 대학사이트에 게시된 대화내용과 글쓴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학자계층의 언어는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글 내용과 정보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은 심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별명이 고도의 전략적인 언어행위라면, 자신들 그룹구성원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정한 통신별명을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적 언어행위로 볼 수 있다.

6. 결론

이 논문은 한국학자들이 특정한 웹 사이트에 표현한 언어들을 검토, 분석하여 그들의 언어에 사회방언 및 언어정체성인식과 관련해 어떠한 특성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인터넷 언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속어, 은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표준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국어(영어) 어휘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문장도 대체적으로 장문이었고, 앞뒤 문맥을 잘 인식하고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정확한 구사를 하고 있어 상위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언어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언어 특성 외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즐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언어보다는 형식적인 언어를 고집하고 있었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유리하도록 번호메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말투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자성과 의무감을 표현함으로써 특권 계층임을 암시하였지만 동일한 통신별명을 사용하는 심리적인 면도 발견되었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그룹은 상위계층의 계층어로서의 언어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언어특성으로 그들의 그룹 정체성을 잘 표출하고 있었다. 상위계층이라는 사회요인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사회방언(언어특성들)은 그룹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들 그룹 구성원들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언어특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 언어특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방언(언어특성들)이 자신들의 적극적인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한, 이들 그룹 구성원들은 그들의 사회방언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방언 같은 자신들의 언어 특성들이 다른 그룹과 차별화시키고 그들 그룹 고유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학자집단은 자신들의 언어 특성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언어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을 통해 언어는 사회계층이라는 사회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사회와 언어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웹사이트라는 한정된 공간에 표현된 인터넷 언어들만을 분석해서 얻어진 이러한 특성들이 모든 학자들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앞으로 여러 집단의 언어특성들을 비교, 연구할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상위계층이라도 각 직업별 언어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같은 상위계층에 있는 다른 직업(예, 의사, 변호사, 검사 등)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는 어떤 언어변이가 있고 어떤 언어특성이 있는지 그들의 인터넷 언어와 본 연구의 인터넷 언어와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의 결과가 상위계층인 학자들만의 배타적, 차별적 언어특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계층의 인터넷 언어 특성도 비교, 연구 가능할 것이다. 언어와 사회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인간사회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집단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교빈, 권인호, 이종란, 이현구, 김홍경, 이철승, 김형찬, 박정심. (2007). *한국철학스케치 2*. 서울: 풀빛.
- 김영모.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서울: 일조각.
- 김종훈, 박영섭, 김태곤, 김상윤. (2005). *은어 비속어 직업어*. 서울: 집문당.
- 송경숙. (2003). 한국어와 영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성 역할. *사회언어학*, 11(2), 161-186.
- 송민규. (2007). *가상공간의 신어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규, 안귀남. (2007). *한국어 방언학*. 서울: 학연사.
- 이익섭. (1998).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정복. (2003).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게시글에 나타난 인터넷 언어분석. *한국어학*, 21, 239-267.
- 이정복. (2009).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서울: 소통.
- 이주행. (2007). *한국어 사회방언과 지역 방언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최진숙. (2004). The introduction of English as a second official language and Korean Linguistic identity. *언어학*, 12(3), 129-149.

- 최진숙. (2006). Who accentuates an inter-group dialect in an inter-dialectal place? *사회언어학*, 14(1), 77-98.
- 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통계정보).
- Bourhis, R. Y. & Giles, H. (1977). The language of intergroup distinctiveness. In H. Giles(ed.),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pp. 105-126). New York: Academic Press.
- Edwards, J. (1985). *Language, society and identity*. London: Billing & sons Ltd.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Fishman, J. A. (1972). *Language and Nationalism: Two Integrative Essays*. Rowley, Mass: New bury House.
- Giles, H. & Johnson, P. (1987). Ethnolinguistic identity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68, 69-99.
- Giles, H. & Coupland, N. (1991). Language attitudes: Discursive, contextual, and gerontological considerations. In A.G. Reynolds(ed.), *Bilingualism, Multiculturalism and Second Language Learning*(pp85-95).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iles, H. & Robinson, W. P.(ed.)(1990). *Handbook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Chichester: John Wiley Press.
- Gudykunst, W. B.(ed.)(1988).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New York: Multilingual Matters.
- Holmes, J. (Ed.). (2001).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Essex: Longman.
- Homers, J .F. & Michel H. A. B. (1989). *Bilinguality and Bilingu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maine, S. (1995). *Bilingualism*. Oxford: Blackwell.
- Sohn, H. M. (1994). *Korean*. London: Routledge.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 65-93.

최진숙

626-847 경상남도 웅상읍 주남리 산 150

영산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전화: (055)380-9236

이메일: jinachoi1@naver.com

Received on 1 July,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28 August, 2011

Accepted on 28 August, 2011